

창세기 11:1-9 윌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세계에서 명품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고가품 사고난 뒤 후회하거나 죄의식을 느꼈다." 응답한 일본, 중국, 유럽연합, 미국인이 10 에서 15%인데, 한국은 5%로 아주 낮습니다. "명품 과시하는 게 나쁘다"는 응답도 한국은 22%로 다른나라들보다 낮습니다. 한국 GDP 규모는 세계 1.4%인데, 명품 소비 비중은 4%로 세배가량 높습니다. 한국은 과소비국가란 말입니다. 명품 시계 하나쯤 차고 큰 집 사는 게 잘못입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게 잘못입니까? 자체로 잘못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보다 그런 걸로 인정받기위해 과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안전과 장래의 보장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누구도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종류의 탑을 쌓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창 11:1-9 같이 읽겠습니다.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기도)

언어가 혼잡해진 기록 위치가 어정쩡해 보입니다. 앞서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셈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기록될 때, 10:5, 20, 그리고 31 절에 이미 '언어가 달라졌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진 기록이 나오니까 순서가 뒤집혀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역사를 기록한 걸 잘 보시면, 먼저 개략적인 기록을 한 다음 자세한 내용을 다시 기록하는데, 바벨성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이 기록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갈라진 언어와 민족 가운데 셈족의 후손인 아브람을 부른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편집 의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알려진 기사입니다. 중동 지방 유적인 지구라트를 바벨탑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삼십개 지구라트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오래된 수메르인들 유적입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겨,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게 지었습니다. 지구라트 높이와 건물 바닥이 모두 300 피트나 되는 거대한 것도 있는데, 63 빌딩보다 높습니다.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 그 옛날 도시 가운데 있고, 수메르인들은 말둑 신에게 사람을 죽여 바치는 제단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문에서도 ‘바벨탑’이란 말은 없습니다. 바벨이란 이름은 그들이 세운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성’이란 표현이 더 맞습니다. 바벨성 안에 높이 쌓은 탑이 있었습니다. 8 절도 ‘탑쌓기’가 아니라, ‘성쌓기’를 그칩니다. 탑을 쌓고 성 세운 이유도 다릅니다. 인신 제사를 위해 쌓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대한 탑을 쌓고 성을 세운 자기들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부터 오천년 전에 어떻게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하고 위대한 업적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을 위한 기념물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념물이 분명합니다.

1 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지구상에는 약 6,700 개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투리 말고, 완전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다른 언어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원래 하나였다고 합니다. 4 절에 탑을 쌓고 성을 세운 동기가 나옵니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이 창 1:28 아담을 축복하시고, 창 9:7

노아를 다시 축복하신 게 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아닙니까? 그러자면 의당 '흠어짐을 면할 게' 아니라, 흠어져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똥똥 뭉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름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거슬러, 스스로를 높일 목적에서 탑을 쌓고 성을 세운 겁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높이 쌓은 건, 노아 홍수를 마음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뜻에 거슬러 하나님께 맞서면, 하나님 약속도 못 믿습니다. 다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단 약속도 못 믿으니, 결국 스스로 힘과 수단으로 스스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지금도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역시 믿을 건 돈 밖에, 실력 밖에, 외모 밖에 없고 그게 현재 즐거움을 주고 장래를 보장할 줄 압니다. 자기 대만 아니라 대를 이어 누리려고 세습까지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오늘 기사를 다시 읽으면, '이름을 내자'는 바벨 사람들 의도가 단지 유명해지자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인간 스스로 '만물의 척도'가 되겠단 말입니다. 고든 웬함도 "스스로 이름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신적 특권을 강탈하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이름을 주십니다. 곧 이어 아브람을 부르실 때, 창 12:2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삼하 7:9 다윗에게도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기 백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하나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바벨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한 겁니다. 첫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겁니다.

이런 반역에 하나님은 빠르게 대응하십니다. 5 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얼마나 코믹합니까? 사람이 쌓을 수 있는 한 높이 탑을 쌓고 모을 수 있는대로 모아 성을 세웠는데, '내려오셨다.' 인생이 야단내고 지어놓은 걸 보시려고, 보좌로부터 내려 오셔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나레이터는 이런 인간들 시도

자체를 비웃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신들이 바벨론을 지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나레이터는 정곡을 찔러, “땅의 아들들이 지은 것”이다. “인간 기술이 정말 인류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나?” 비웃습니다. 그럴 수 없고 도리어 역효과만 냅니다. 인간 기술은 스스로 파괴의 벼랑으로 밀어넣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고 은혜로운 성품은 이 파괴의 역사에 개입해,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 어리석은 계획을 흩어 놓으십니다.

이제 방법만 남았습니다. 6 절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똘똘뭉쳐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3, 4 절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거기 대응해 하나님이 7 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서로 대칭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말을 서슴치 않던 목청에서 나온 그 언어를 혼잡케 해 소통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 심판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벨이란 반 신국적 연합세력을 깨뜨려야 하셨습니다. 8 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애초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목적에서 시작한 인간의 결탁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 정확히 그들이 우려한 대로 흩어집니다. 땅에 충만하란 명령에 맞서 연합전선을 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십니다.

9 절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혼잡케하다’는 히브리어가 ‘발랄’입니다. 말놀이로 바벨을 조롱하기 위해 발랄을 쓴 겁니다. 그

성 이름을 그들은 '신의 문'이란 뜻으로 바벨이라고 했지만, 그들을 '발랄' 흠여지다 혼돈이라고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흠여십니다. 하나님이 바벨 사람들을 흠여신 것은 축복을 퍼뜨리기 위해, 이 땅에 당신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사를 모압광야에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신 1:28 '하늘에 닿을듯' 높고 견고한 가나안 성읍들은 두려움에 떠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대항해 결탁한 바벨로 읽혔을 겁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성 이야기가 히브리인들에게 소망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소망이 됩니다. 성경에서 바벨, 바벨론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바벨 사람들을 흠여십니다. 바벨을 흠여시고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 가운데서 아브람을 불러 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언어학자 중에는 언어의 유사성을 연구해, 모든 언어가 원래 한 언어였던 걸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성 사건을 그렇게 입증하려는 겁니다. 창 1:1, 3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요 1:1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요한이 헬라어에서 차용한 말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단지 언어가 아닌, 엄청난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요 11:43-44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뭇로 살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행 2:4-8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언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방언인데, 방언을 시작하자 지중해 연안 여러 지역에서 유월절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무식한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급 언어를 다 구사하나?’ 놀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벨성 사건으로 혼잡해진 언어가 통일된 겁니다. 계 7:9-12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혼잡된 언어가 통일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나타날 겁니다. 바벨성 사건 역순으로, 갈라진 언어가 통일되고 민족이 하나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언약이 성취된 시작과 끝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두려움에 쌓인 스스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슬람국가란 테러단체가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집단 학살했고, 어제 세번째로 영국인 기자를 처형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에 핵무기를 발사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이슬람국가를 말살할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은 미사일 방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닌 무기와 방어시스템 잘 갖춘 안전한 나라에 자기 안전을 맡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바벨성 이야기는 아무리 인간 기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뜻에 맞서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보잘 것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우리 궁극적 안전은 인간이 세운 탑이나 성, 그게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든, 개인적으로는 돈이든, 실력이든, 외모든 그게 현재 즐거움을 주고 장래를 보장하지 않는단 사실입니다. 대를 이어 세습해 누린다고 그게 영원합니까? 우리 안전은 오직 무한하시고 지금도 당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이 지으신 세계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반한 세상 왕국들을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박해받는 교회든 이민교회든, 어떤 교회든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구하십니다. (기도)